

2023 ARPS 교재 연례개정

2권. 은퇴설계를 위한 현금흐름(Cash Flow) 확보와 세금설계

2권 1장. 연금제도를 활용한 현금흐름(Cash Flow) 확보 전략

쪽수	출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	하10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34만원보다 많으면 43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2017년 기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적용).	내용 수정
19	상3	예를 들어 월소득이 6백만원인 사람은 최고등급에 해당되므로 5,240,000의 9%인 471,600원을 매달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납부기간이 40년이라면 노령연금으로 매달 1,569,030(현재가치 기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6백만원인 사람은 최고등급에 해당되므로 5,530,000의 9%인 497,700원을 매달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납부기간이 40년이라면 노령연금으로 매달 1,686,080(현재가치 기준)원을 받게 된다.	내용 수정
19	표	[표 1-3]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첨부 1] 참조	표 수정
20	표	[표 1-4]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대비 수령액	[첨부 2] 참조	표 수정
20	상5	(2017년의 경우 월 2,176,483원)	(2023년의 경우 월 2,861,091원)	내용 수정
27	상2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군인연금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내용 수정
27	상9	연계한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계한 연금가입기간이 10년(군인연금연계는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표에 있는 내용 수정
29	상10	2022년 현재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의 경우 180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288만원이다.	2023년 현재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의 경우 202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323.2만원이다.	내용 수정
29	상12	2022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이 적용된다.	2023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 적용된다.	내용 수정
30	상6		추후납부가 가능한 최대기간은 119개월이다.	내용 추가

30	상9	일부(50~10%)	일부(50~100%)	내용 수정
30	하1	(2017년 기준 중위수 소득: 995,000, 연금보험료 89,500원)	(2022년 기준 중위수 소득: 1,000,000, 연금보험료 90,000원)	내용 수정
33	상14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부터	내용 수정
35	하5	나. 2060년 기금고갈 예상	나. 2055년 기금고갈 예상	내용 수정
35	하3	2060년	2055년	내용 수정
36	상3	(재정적 지속가능성, 2015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자료집 인용, 2015.10.29)	내용 삭제	삭제
40	첫 박스 하단 표	누진(기본)세율표(지방소득세 10% 별도)	[첨부 3] 참조	내용 수정
42	상5	400만원(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3백만원)	600만원	내용 수정
46	하4~1	근퇴법상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퇴직금을 입금할 것을 정하고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55세 이상, 300만원 이하 등 근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할 수 있다.	내용 수정
47	상3~4	또는 처음부터 퇴직하는 회사에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금(세전 퇴직금)을 IRP에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내용 삭제	삭제
48	하4	2014년에는 400만원이었지만 2015년부터 7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연금저축도 연금계좌이지만 퇴직연금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에만 300만원 이 추가된 것이다	2014년에는 400만원이었지만 2015년부터 700만원, 2023년부터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한도 900만 원을 전 가입자로 확대하였다.	내용 수정

49	상11	예를 들어 2013년에 IRP에 당시 연간납입한도인 1,200만원을 입금한 후 당시 소득공제한도인 400만원만 공제받고 그중 공제받지 않은 800만원 중 700만원 을 2016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해 줄 것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요청하면 2016년 에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IRP에 당시 연간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입금한 후 당시 소득공제한도인 700만원만 공제받고 그중 공제받지 않은 1,100만원 중 900만원을 2023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해 줄 것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요청하면 2023년에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용 수정
49	하4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DB나 DC 같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라면 예외사유(55세 이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천재지변 중 하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예외사유(55세 이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내용 수정
50	상6~12	퇴직연금 미가입자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 즉 세후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만약 세후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후 기준으로 전부 또는 일부(2013년부터 입금비율요건 삭제)를 IRP로 입금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IRP에 입금한 비율만큼 IRP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또는 퇴직금을 받기 전에 IRP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IRP로 지정하여 퇴직하는 회사에 요청하면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이 입금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55세 이상, 300만원 이하 등 근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퇴직급여가 재입금된 연금계좌로 환급된다.	내용 수정
58	상11	세법상 인출 순서 1. 과세제외금액(소득·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2. 이연퇴직소득 3. 그외 소득(운용수익 및 소득·세액공제받은 자기 부담금)	세법상 인출 순서 1. 과세제외금액(소득·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2. ISA 만기 시 전환금액 3. 이연퇴직소득 4. 그외 소득(운용수익 및 소득·세액공제받은 자기 부담금)	내용 수정
60	사례 박스 A4)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 합산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와 16.5%로 분리과세 중 선택	내용 수정
61	박스 하1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 합산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 합산(2023년부터 16.5%로 분리과세 선택 허용)	내용 수정

63	하1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부터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용 수정
63	표 1-15 우측 하단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한 도 1200만원 초과시 합산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초과시 합산(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내용 수정
66	표 1-16 (좌측)	소득세법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 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 파산선고 · 천재지변	소득세법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파산, 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 파산선고 · 천재지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내용 추가
66	표 1-16 (우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유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내용 삭제	삭제
72	표 1-19	3. 근속연수공제 산식 테이블	첨부 4 참조	내용 수정
73	표 1-20	2. 근속연수공제 산식 테이블	첨부 5 참조	내용 수정
74	상6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16.5%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내용 수정
78	하9	보통 IRP에 자기부담금을 연간세액공제한도(700만원)까지만 불입하는데	보통 IRP에 자기부담금을 연간세액공제한도(900만원)까지만 불입하는데	내용 수정
92	상2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한 경 우는 3백만원)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내용 수정

92	상4	12%(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종합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내용 수정
92	박스 표	[연금계좌 세액공제 - 일반]과 [연금계좌 세액공제- 50세 이상] 표 통합	[첨부 6] 참조	내용 수정
94	표 1-22	행 삽입	[첨부 7] 참조	내용 수정
111	하6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일 것	내용 수정
115	하1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초과 시 합산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초과 시 합산(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내용 수정
116	표 7행, 연금저 축 칸	세액공제 400만원~세액공제 400만원 X 12%(15%) = 48만원 (60만원)	세액공제 600만원 X 12%(15%) = 72만원 (90만원)	내용 수정
116	표 7행, IRP칸	7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X 12%(15%) = 84만원(105만원)	9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X 12%(15%) = 108만원(135만원)	내용 수정
116	표 마지막 행	연금수령 시 (연금저축 + 퇴직 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연금수령 시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계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내용 수정

[첨부 1]

[표 1-3] 노령연금예상월액표

(단위:원)

가입기간 중 월평균기준소득	연금보험료	20년 가입 시 월수령액(현재가치 기준)	40년 가입 시 월수령액(현재가치 기준)
1,000,000	90,000	389,720	775,830
2,000,000	180,000	490,660	976,770
3,000,000	270,000	591,600	1,177,710
5,530,000 (상한액)	497,700	846,970	1,686,080

※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국민연금예상수령액 등)은 국민연금콜센터(1355)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2022년 1월 최초가입 가정

※ 출처 : 국민연금공단(2023. 2 .28.)

[첨부 2]

표 1-4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대비 수령액

(단위:원)

월소득액	연금보험료	40년간 납부보험료(A)	월수령액 (현재가치 기준)	20년간 연금수령액(B)	B/A
1,000,000	90,000	43,200,000	775,830	186,199,200	431%
2,000,000	180,000	86,400,000	976,770	234,424,800	271%
3,000,000	270,000	129,600,000	1,177,710	282,650,400	218%
5,530,000 (상한액)	497,700	238,896,000	1,686,080	404,659,200	169%

[첨부 3]

누진(기본)세율표(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15,000만원 이하	35%	1,544만 원
15,000만원 초과~30,000만원 이하	38%	1,994만 원
30,000만원 초과~50,000만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 원

[첨부 4]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 원 x 근속연수
5 ~ 10년	500만 원+200만원 x (근속연수-5년)
10 ~ 20년	1,500만 원+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첨부 5]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 원 x 근속연수
5 ~ 10년	500만 원+200만원 x (근속연수-5년)
10 ~ 20년	1,500만 원+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 원+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첨부 6]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한도)	공제율
4천 5백만원 이하(5.5천만원)	600	15%
1억원 초과(1.2억원)	600	12%

[첨부 7]

표 1-2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자기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연혁

기간	공제방식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효과
2001~2005	소득공제	연금저축	240만원	공제액×누진세율(9~36%)
2006~2010	소득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300만원	공제액×누진세율(6~35%)
2011~2013	소득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400만원	공제액×누진세율(6~38%)
2014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400만원	공제액×12%(15%)
2015~2022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700만원	공제액×12%(15%)
2023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900만원	공제액×12%(15%)

2023 ARPS 교재 연례개정

2권. 은퇴설계를 위한 현금흐름(Cash Flow) 확보와 세금설계

2권 2장. 금융상품을 활용한 현금흐름(Cash Flow) 확보 전략

쪽수	출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27	하6 ~ 하4	금융투자협회의 '2021년 펀드 시장 결산'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현재 전체 펀드 순자산은 831.9조원이며, 이 중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2020년말 대비 11.9조원 증가한 129.8조원 규모이다.	금융투자협회의 '2022년 펀드시장 결산'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현재 전체 펀드 순자산은 851.3조원이며, 이 중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2021년말 대비 14.1조원 감소한 115.7조원 규모이다.	내용 수정
127	하2 ~하1	금리 인상 시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금리가 인상된 2021년 하반기부터 채권형펀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 시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국내외 금리가 크게 인상된 2022년에는 국내채권형펀드, 해외채권형펀드 모두 약세를 면치못했다.	내용 수정
129	표	표 2-5	[첨부 1] 참조	표 수정
131	하5 ~하3	두번째로, 이제 한국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2022년 한국의 채권시장이 매우 복잡한 일들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필두로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레고랜드'사태 뿐만 아니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사태를 거치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뜨리는 악재가 연이어졌다.	내용 수정
131	그림	그림 2-2	[첨부 2] 참조	그림 수정
132	표	표 2-7	[첨부 3] 참조	표 수정
133	상1~2	전문가들은 ~ 분석하고 있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원자재 가격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내용 수정
136	그림	그림 2-3	[첨부 4] 참조	그림 수정
144	그림	그림 2-6	[첨부 5] 참조	그림 수정
145	표	표 2-8	[첨부 6] 참조	표 수정

146	표	표 2-9	[첨부 7] 참조	표 수정
152	상5	2021년 12월 31일 기준 채권혼합형펀드 순자산 금액은 23조 8천억원이다.	금융투자협회의 2023년 2월 25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채권혼합형펀드 순자산 금액은 약 13.7조원이다.	내용 수정
152	그림	그림 2-7	[첨부 8] 참조	그림 수정
153	상1 ~ 상15	② 2021년에 몸집 늘린 채권 혼합형펀드 내용 전체	② 2022년에 쪼그라든 채권혼합형펀드 2022년 자본시장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크나큰 유동성 공급의 후유증이 컸던 한 해였다. 2021년 3300선을 넘었던 KOSPI는 2230선까지 추락했으며, 고객예탁금이 연초 대비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 정도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IPO시장도 일부 종목으로 자금 쓸림이 심화되면서 상장철회가 이어졌고, 쓸림현상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인수합병(M&A) 시장은 상반기까지는 지난해의 온기가 이어지는 듯했지만 금리인상, 불황우려 등 악재가 쌓이며 갈수록 위축됐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국내혼합형펀드 규모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건취 펀드 설정액과 펀드 수 모두 뒷걸음질 쳤다. 코스닥벤처펀드 중심으로 수익률 저하가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여파에 펀드 규모도 작아졌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여파로 채권형펀드를 비롯해 채권혼합형펀드에서 자금은 순유출되었다. 2022년 1년간 채권혼합형펀드에서는 약 4.6조원의 자금이 유출되었다.	내용 수정
154	상6 ~ 상7	설정액은 4년 새 반 토막 나면서 2020년 이후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다.	설정액은 5년 새 반 토막 나면서 2021년 이후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다.	내용 수정
154	하1~ 하2	반면,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펀드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펀드의 인기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내용 수정
154	그림	그림 2-8	[첨부 9] 참조	그림 수정
155	표	최근 5개년 발행형태별 ELS 발행 규모	[첨부 10] 참조	표 수정

157	표	표 2-11	[첨부 11] 참조	표 수정
158 ~ 159	하4 ~ 하1	[첨부 12]	[첨부 12] 참조	내용 수정
159	그림	하단 그림	[첨부 12] 참조	그림 수정
162	하7	2021년 DLS(DLB포함) 총 발행금액은 17조 498원으로 ~ 혼합형이 1조 1,173억원 (6.6%)을 차지했다.	2022년 DLS(DLB포함) 총 발행금액은 16.5조원으로 2021년(17.0조원)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발행금액이 DLS 발행금액 전체의 56.2%(9조 2,697억원), 사모 발행금액이 43.8%(7조 2,338억원)를 차지했다. 공모 발행금액은 2021년(4조 779억원) 대비 127.3% 증가했으며, 사모 발행금액은 2021년(12조 9,719억원) 대비 44.2% 줄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가 12조 8,355억원(77.8%), 신용이 3조 5,910억원(21.8%), 혼합형이 436억원 (0.2%) 발행되었다. 2022년 하나증권의 DLS발행금액은 3조 8,278억원으로 발행규모가 가장 컸으며 상위5개사 DLS 발행금액의 합은 9조 7,266억원으로 전체 DLS 발행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내용 수정
163	표	② 기초자산별 전체 DLS 발행 현황	[첨부 13] 참조	내용 수정
164	그림	그림 2-9	[첨부 14] 참조	그림 수정
165	그림	[그림 2-10	[첨부 15] 참조	그림 수정
166	그림	그림 2-11	[첨부 16] 참조	그림 수정
166	그림	그림 2-12	[첨부 17] 참조	그림 수정
170	상6	2021년 12월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 규모는 약 112조원에 이른다.	2022년 3월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 규모는 약 107조원에 이른다.	내용 수정
170	표	표 2-12	[첨부 18] 참조	표 수정

171	표	표 2-13	[첨부 19] 참조	표 수정
179	상6 ~ 상8	<p>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롱숏펀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p> <p>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24일 기준 롱숏펀드에는 3개월간 691억원이 들어왔다. 기간을 1개월로만 따지면 197억원이 유입됐다.</p>	<p>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롱숏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1년간 롱숏펀드에는 1,374억원이 유입됐다.</p> <p>롱숏펀드가 구사하는 전략은 크게 펀더멘털 롱숏(Fundamental Long/Short) 전략과 페어 트레이딩(Pairs Trading) 전략으로 나뉜다. 펀더멘털 롱숏 전략은 숏 포지션이 적극적 수익 실현의 카드로 활용되며, 페어 트레이딩 전략의 경우 동일 섹터 내 저평가와 고평가 종목에 롱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p>	내용 수정
180	그림	그림 2-14	[첨부 20] 참조	그림 수정
180	그림	그림 2-15	[첨부 21] 참조	그림 수정
187	그림	그림 2-16	[첨부 22] 참조	그림 수정
196	하10	<p>2022년 2월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에 머무르고 있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적금 이자 소득에만 의존하던 보수적 투자자들도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수익을 기대하게 됐다.</p>	<p>2022년 이후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p>	내용 수정
199	그림	그림 2-17	[첨부 23] 참조	그림 수정
200	그림	그림 2-19	[첨부 24] 참조	그림 수정
201	상3	전국적으로 16개 인프라에 분산투자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17개 인프라에 분산투자하고 있음	내용 수정
201	그림	그림 2-20	[첨부 25] 참조	그림 수정

[첨부 1]

[표 2-5] 대표적 채권형펀드 수익률 (2023.2.25. 기준)

펀드명	직전 1년 수익률
하이 ALL 바른 ESG 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3.03%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2.61%
MVP 장기공사채 M-2(채권)	2.59%
흥국멀티플레이증권자투자신탁 4(채권)	2.35%
마이다스우량채권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2.33%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Fn가이드, 펀드정보 원클릭 시스템

[첨부 2]

[그림 2-2] 연도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3년2월25일 기준)



※출처 : 한국은행

[첨부 3]

[표 2-7] 주요 해외채권형펀드(2023.2.25. 기준)

펀드명	직전 1년 수익률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 1(UH)(채권)	9.21 %
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 UH[채권]	7.89 %
피델리티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UH(채권-재간접형)	5.22 %
베어링글로벌선순위담보채권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4.20 %
멀티에셋삼바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채권]	3.53 %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Fn가이드, 펀드정보 원클릭 시스템

[첨부 4]

[그림 2-3] 2022년 ELB 발행액 추이

월	ELB발행액
2022년1월	1조 2,145억원
2022년2월	6,026억원
2022년3월	8,638억원
2022년4월	6,970억원
2022년5월	5,957억원
2022년6월	1조 5,493억원
2022년7월	8,723억원
2022년8월	9,098억원
2022년9월	4,776억원
2022년10월	1조 1,762억원
2022년11월	3조 394억원
2022년12월	17조 5,735억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시스템

[첨부 5]

[그림 2-6] 2022년 DLB 월별 발행액 추이

월	DLB 발행액
2022 년 1 월	5,544 억원
2022 년 2 월	5,604 억원
2022 년 3 월	4,243 억원
2022 년 4 월	4,580 억원
2022 년 5 월	4,334 억원
2022 년 6 월	1 조 1,020 억원
2022 년 7 월	8,939 억원
2022 년 8 월	6,895 억원
2022 년 9 월	1 조 836 억원
2022 년 10 월	1 조 5,951 억원
2022 년 11 월	2 조 5,902 억원
2022 년 12 월	2 조 8,276 억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시스템

[첨부 6]

[표 2-8] 직전 1년간 월별 공시기준이율

연월	공시기준이율
2022 년 4 월	연 2.6 %
2022 년 5 월	연 2.7 %
2022 년 6 월	연 2.9 %
2022 년 7 월	연 3.1 %
2022 년 8 월	연 3.3 %
2022 년 9 월	연 3.5 %
2022 년 10 월	연 3.7 %
2022 년 11 월	연 3.9 %
2022 년 12 월	연 4.2 %
2023 년 1 월	연 4.4 %
2023 년 2 월	연 4.4 %
2023 년 3 월	연 4.2 %

※출처 : 보험개발원

[첨부 7]

[표 2-9] 주요 생명보험사별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공시이율

(2023년 2월 기준)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공시이율
NH 생명	연 2.60 %
교보생명	연 3.15 %
삼성생명	연 3.12 %
한화생명	연 3.13 %
IBK 생명	연 3.20 %
하나생명	연 2.85 %
푸본현대생명	연 3.15 %
KB 라이프	연 3.00 %
동양생명	연 2.95 %
흥국생명	연 2.18 %

※출처 : 각 생명보험사 홈페이지

[첨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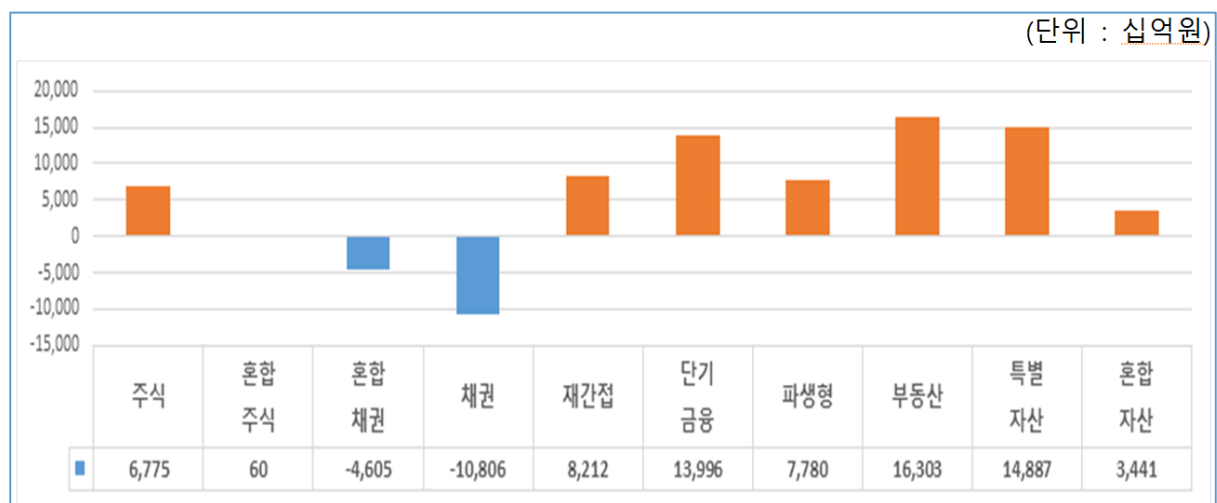
[그림 2-7] 채권혼합형펀드 순 자산액 추이 (단위 : 억원)

월	채권혼합형펀드
2022년1월	21조 5,990억원
2022년2월	20조 7,498억원
2022년3월	20조 7,477억원
2022년4월	19조 8,586억원
2022년5월	19조 4,835억원
2022년6월	18조 7,330억원
2022년7월	18조 5,102억원
2022년8월	17조 4,259억원
2022년9월	16조 2,915억원
2022년10월	15조 5,851억원
2022년11월	15조 1,310억원
2022년12월	14조 1,438억원

※출처 : 금융투자협회

[첨부 9]

[그림 2-8] 2022년 펀드 유형별 자금 유출입 현황



※출처 : 2022년 펀드시장 결산 (금융투자협회, 2023.01.17.)

(첨부 10)

최근 5개년 발행형태별 ELS 발행 규모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공 모		사 모		합 계	
	종목수	금 액	종목수	금 액	종목수	금 액
2018년	11,153	732,107	7,397	134,096	18,550	866,203
2019년	12,096	856,210	7,063	142,801	19,159	999,011
2020년	9,130	578,896	6,220	111,440	15,350	690,336
2021년	11,952	647,652	4,979	74,124	16,931	721,776
2022년	11,191	539,166	3,361	38,049	14,552	577,215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23.1. 19.)

[첨부 11]

[표 2-11] ELS 주요 지수 기초자산별 ELS 발행 규모

(단위: 억원, %)

지 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S&P500	402,938	613,340	366,070	423,103	252,544	-40.3
EUROSTOXX50	579,269	656,540	311,036	361,964	248,440	-31.4
HSCEI	498,155	509,630	190,793	190,979	54,660	-71.4
NIKKEI225	224,345	312,612	104,881	90,279	43,693	-51.6
HSI	19,650	13,738	4,038	4,071	103	-97.5
KOSPI200	351,807	245,698	281,474	278,804	216,612	-22.3

※ 기초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 계산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23.1. 19.)

[첨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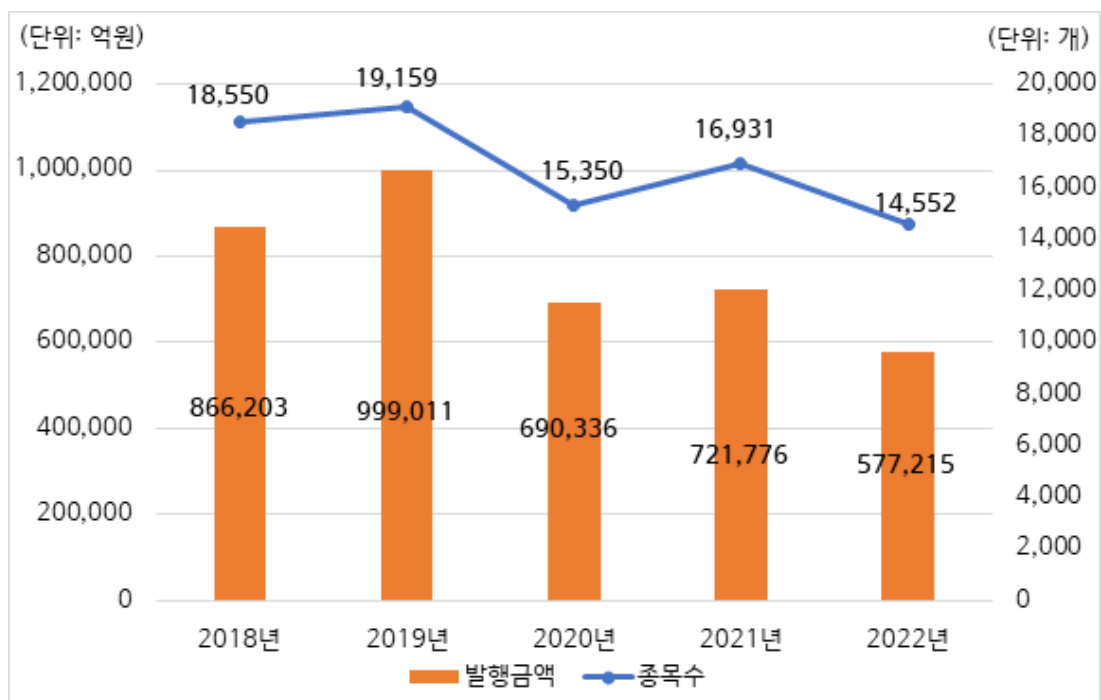
④ 2022년 ELS(ELB 포함) 총 발행금액 57.7조원…전년 대비 20% 감소

2022년 ELS(추가연계증권) 발행금액이 2021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ELB(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한 ELS 발행금액이 57조 7,2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72.2조원) 대비 20.0% 감소한 규모다. 2021년 발행형태별로 공모발행이 ELS 전체의 93.4%(53조 9,166억원), 사모발행이 6.6%(3조 8,049억원)를 차지했다. 공모 발행금액은 2021년(64조 7,652억원) 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사모 발행금액은 2021년(7조 4,124억원) 대비 48.75% 감소했다.

지수(해외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전체 발행금액의 53.7%(31조 153억원), 국내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35.9%(20조 7,067억원)를 차지했다. 해외지수인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HS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발행금액은 각각 25조 2,544억원, 24조 8,440억원, 5조 4,660억원, 4조 3,693억원, 103억원으로 2021년대비 감소했다. 또한 국내지수인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발행금액은 21조 6,612억원으로 2021년 대비 감소했다.

증권사별 발행 금액은 미래에셋증권(7조 394억원)이 가장 컸으며 메리츠증권(6조 4,490억원), 한국투자증권(5조 2,479억원), KB증권(4조 7,699억원), NH투자투자(4조 5,959억원) 순이었다.

2022년 ELS 총 상환금액은 44조 6,911억원 규모다. 상환유형별로 조기 상환금액이 19조 689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42.7%를 차지했다. 만기 상환금액과 중도 상환금액이 각각 21조 1,704억원, 4조 4,518억원으로 42.7%, 10.0%를 보였다. 2022년 말 기준 ELS 미상환 발행잔액은 2021년 대비 23.0% 증가한 70조 9,059억원이다.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23.1. 19.)

(첨부 13)

② 기초자산별 전체 DLS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2. 1Q	'22. 2Q	'22. 3Q	'22. 4Q	'22 연간
금리	14,505	18,789	25,728	69,333	128,355
신용	10,306	12,682	7,859	5,063	35,910
혼합형*	76	14	330	16	436
환율	84	37	13	10	144
펀드/ETF/ETN	-	124	-	-	124
지수	-	-	-	66	66
합계	24,971	31,646	33,930	74,488	165,035

* 혼합형은 성격이 다른 기초자산이 혼합된 형태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23.1. 30.)

[첨부 14]

[그림 2-9] 5년간 WTI유가 추이 (2023.2.24. 기준)



※출처 : 네이버

[첨부 15]

[그림 2-10] 5년간 브렌트 유가 추이 (2023.2.24. 기준)



※출처 : 네이버

(첨부 16)

[그림 2-11] 5년간 국제 금 가격 추이 (2023.2.24.기준)



※출처 : 네이버

[첨부 17]

[그림 2-12] 5년간 국제 은 가격 추이 (2023.2.24. 기준)



※출처 : 네이버

[첨부 18]

[표 2-12] 변액보험펀드 자산규모 추이

시점	변액보험펀드 자산규모
2011 년	66 조
2012 년	73 조
2013 년	79 조
2014 년	81 조
2015 년	91 조
2016 년	95 조
2017 년	103 조
2018 년	98 조
2019 년	104 조
2020 년	112 조
2021 년	112 조
2022 년 3 월	106 조 6960 억원

※출처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첨부 19]

[표 2-13] 2022년말 9월말 기준 변액보험 펀드유형별 순자산액 가중평균 수익률

펀드유형	직전1년	직전3년	직전5년
국내투자펀드	-13.75 %	-0.36 %	-0.71 %
해외투자펀드	-14.79 %	+12.07 %	+19.75 %
국내외투자펀드	-11.09 %	+3.34 %	+7.73 %
총 합계	-13.77 %	+1.96 %	+3.25 %

※출처 : 2022년 3분기 펀드유형별 통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첨부 20)

[그림 2-14] 2021년5월15일~2022년5월16일 국내 롱숏펀드 유입현황



※출처 : 매일경제 2022.05.17.

[첨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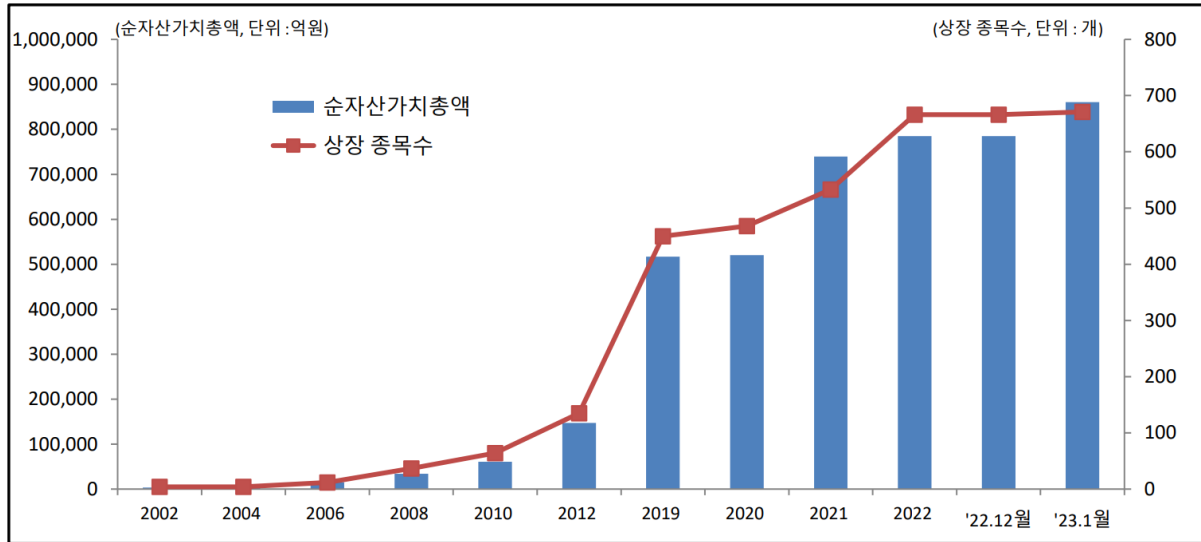
[그림 2-15] 룡숏펀드 - 신한코리아루숏펀드 3년간 수익률 현황 (2023.2.25. 기준)



※출처 : 신한자산운용 홈페이지 2023.2.25.

[첨부 22]

[그림 2-16] ETF 시장 성장세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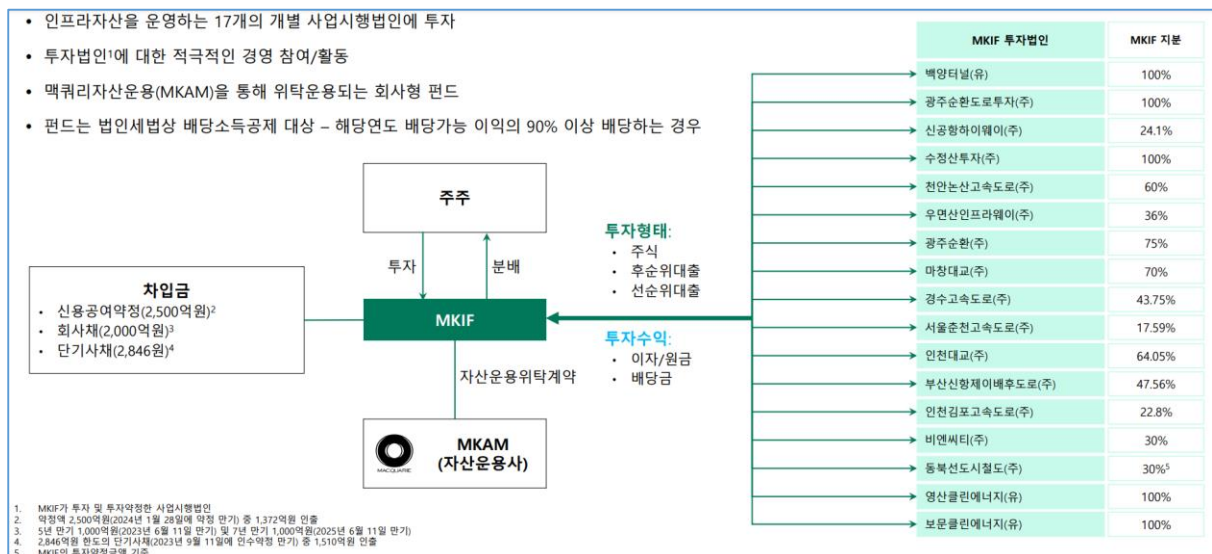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천좌, 개)

구 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9	2020	2021	2022	'22.12월	'23.1월
순자산가치총액	3,444	4,896	15,609	33,994	60,578	147,177	517,123	520,365	739,675	785,116	785,116	860,522
(직전대비 증감률)	-	42.2%	218.8%	117.8%	78.2%	143.0%	26.1%	0.6%	42.2%	6.1%	-4.3%	9.6%

※출처 : KRX ETF.ETN Monthly 2023년 2월호 (한국거래소)

[첨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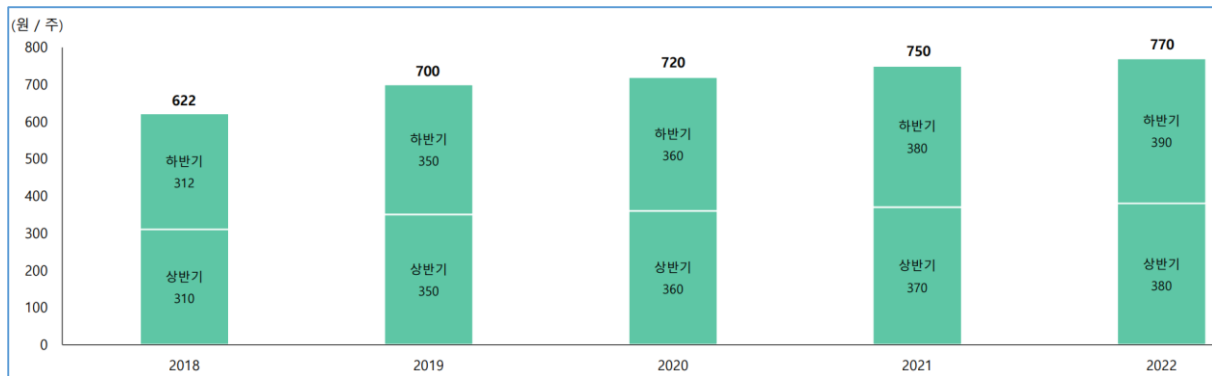
[그림 2-17] 맥쿼리인프라펀드 투자자산 현황



※출처 : 맥쿼리인프라 홈페이지 2023.1.31.

[첨부 24]

[그림 2-19] 맥쿼리인프라 분배금 현황



※출처 : 맥쿼리인프라 홈페이지 2023.1.31.

[첨부 25]

[그림 2-20] 맥쿼리인프라 연혁

설립 / 상장 2002 / 2006	투자대상 코어 및 코어+ 인프라 (국내 자산)	포트폴리오 도로 13개, 항만 1개, 철도 1개, 도시가스 2개	시가총액 ~4.5조원 (KOSPI 66위)
MKIF 연혁¹			
2002 ~ 2006 펀드 설립 및 투자자금 유치	2006 ~ 2009 기업공개 및 자산 안정화	2007 ~ 적극적인 펀드 및 투자자산 관리	2017 ~ 유상증자 및 신성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12월 설립 15개의 자산에 투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의 도로 자산 1개의 지하철 노선 총 1.3조원의 투자자금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3월 상장(1.0조원)² 한국 거래소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² 건설자산 5개 성공적 개통 투자자산 운영 안정화 달성 	<p>펀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12건³ / 매각 4건⁴ 11건의 펀드 자금재조달 / 재권 발행⁵ 효과적인 IR 실행: 펀드 인지도 향상 및 MKIF 주식 거래 활성화 <p>투자자산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건의 투자자산 사업재구조화⁶ 15건의 투자자산 분쟁 해결⁷ 관련 현안 적극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유권해석을 통한 투자대상 범위 확대 다양한 신규투자 기회 모색 2017년 - 유상증자(1,472억원) 2020년 - 유상증자(2,442억원) 2021년 - 유상증자(3,935억원)

※출처 : 맥쿼리인프라 홈페이지 2023.1.31.

2023 ARPS 교재 연례개정

2권. 은퇴설계를 위한 현금흐름(Cash Flow) 확보와 세금설계

2권 3장. 부동산을 활용한 현금흐름(Cash Flow) 확보 전략

교재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15P	표 3-1	삭제	표 삭제
216P 상12-19	<p>보금자리주택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수의 서민 수요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로또와 같은 것이 되었다. 그리고 건설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중소형 분양을 하던 건설사들은 경쟁력을 잃으면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부실화되면서 부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정책의도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 강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제도 등 노무현 참여정부 때 묶였던 규제를 푸는 정책을 실시하였다.</p>	<p>보금자리주택사업과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 강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제도 등 노무현 참여정부 때 묶였던 규제를 푸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 효과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쟁력 하락 속에 부실화되면서 부도로 이어지는 등 정책의도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었다.</p>	내용 수정
218p 상10-15	<p>문재인정부 임기 중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도시개발,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단지 조성, 용산공원개발, 광역철도망과 지하철 건설등의 교통호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공공주택용 택지조성, 민간 복합단지개발, 재건축사업 등 서울에서 예정돼 있는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이런 개발 이슈는 부동산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인해 국부적 지여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p>	삭제	내용삭제

218p	내용 추가	<p>(4)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시장</p> <p>윤석열정부는 규제가 많았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주요 공약을 보면 5년간 전국 250만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신규공급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양도세율 인하,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러한 공약을 통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22년 12.21 규제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p> <p>①취득세 중과 완화: 2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 및 일반세율로 전환, 3주택, 4주택 취득세 중과를 절반수준으로 인하②양도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연장 ③대출규제 완화 ④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⑤민간등록임대 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시 급등했던 주택시세가 2022년 하반기를 지나 2023년 미국발 고금리 전개와 함께 레고랜드발 신용경색으로 인해 건설경기를 필두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세가 급락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부동산시장이 급냉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부동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와 긴밀한 영향력 속에 국내경제에 따라 연동되고 있는 경제제인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p>	내용 추가
224p 상11~15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년 한국 부자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약40만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2년 12월 발간한 '2022년 한국 부자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약42만명)들의 자산	내용 수정

	<p>‘부동산자산’ 59.0%, ‘금융자산’ 36.6%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산유형별 구성을 보면 ‘거주 주택’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고, ‘유동성 자금’(12.6%), ‘빌딩/상가’(10.8%), ‘예적금’(8.1%) 순이었다.</p>	<p>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6.5%, ‘금융자산’ 38.5%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산유형별 구성을 보면 ‘거주 주택’의 비중이 27.5%로 가장 높았고, ‘유동성 자금’(14.2%), ‘거주용외 주택’, ‘빌딩/상가’(10.8%), ‘예적금’(9.5%) 순이었다.</p>	
225p 표3-3	가구당 자산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	가구별 자산유형별 보유액 [첨부 1]	표 교체
225p 하5~3	2020년 12월 기준 평균가격이 7억원을 상회한다.	2023년 1월 기준 평균가격이 8억원을 상회한다.	내용 수정
230p 상8~ 하3	<p>이러한 영향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퇴자금으로 10억원을 예치시 연간 이자율이 2%대로 월200만원 수준의 현금흐름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연금개시 전 은퇴세대의 투자수익 하락은 현금흐름의 부정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 영향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차익 관점에서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자산의 투자수익(율)과 비교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투자대상으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저금리현상 지속과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부동산투자의 관점이 단순한 주거나 시세차익 관점에서 운용수익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대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변화는 주택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40%대에서 90% 이상 되었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부분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신규 임차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변화는 저금리시대에서 금리상승기로 반전된 상황에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시장이 ‘전세→반월세→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주거용 주택시장은 월세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투자</p>	<p>이러한 영향과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었다. 코로나시기에 이르기까지 저금리현상 지속으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부동산투자의 관점이 단순한 주거나 시세차익 관점에서 운용수익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대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미국발 금리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량 감소,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건설시장 대 혼란이 발생하였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2022년~2023년 부동산 시세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의 전세시장이 반월세,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주거용 주택시장은 월세가 일반화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되면서 주택도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용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규모에 따라 투자대상을 달리해야 하는데, 소액 개인자산가들은 오피스텔, 구분상가와 같은 소규모 투자를, 고액 개인자산가들은 중소형 임대용빌딩과 거액의 자본형투자에 관심을 갖고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p>	내용 수정

	<p>패러다임 변화는 주택도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용 부동산 투자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점이다.</p> <p>이와 같은 투자의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을 찾기 시장하였으며, 주거와 업무용도를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투자규모에 따라 소액 개인자산가들은 오피스텔, 구분상가와 같은 소규모 투자를, 고액 개인자산가들은 중대형 임대용빌딩과 거액의 자본형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p>		
251p 하2~1	리츠시장규모는 2021년 총자산이 약72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대형 우량부동산이 펀드와 리츠의 시장에 지속적으로 편입되면서 이들 간접투자 시장의 규모는 200조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내용 수정
252p 상3~4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펀드 및 리츠의 투자규모가 200조원대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삭제	내용 삭제
252p 하8~하5	하지만 최근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였으나,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 및 리츠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삭제	내용 삭제
252p	그림 3-8 간접투자시장(리츠) 추이	그림 교체 간접투자시장(펀드) 추이 [첨부 2] 참조	그림 교체
259p	표 3-13 수익용부동산과 금융자산 수익률 비교	표 3-13 교체 [첨부 3] 참조	표 교체
259p 하1 ~ 260p 상6	2022년 1월 기준금리는 1.25%, 국고채(3년)금리 2.06%, 91일물 CD금리가 약1.39%수준으로 전년대비 많이 상승하였다.	2022년 1월 기준금리는 1.25%, 국고채(3년)금리 2.06%, 91일물 CD금리가 약1.39% 수준에서 2023년 2월 기준금리는 3.5%, 국고채(3년)금리 3.8%, 91일물 CD금리가 약3.6%로 전년대비 급상승하였다. 이렇게 안정적인 금융자산의 금리인상 영향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는 상당기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수정

263p 상10~	그림 3-9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추이	그림 교체 [첨부 4] 참조	그림 교체
263p 하3~하1	...2012년 가입자가 1만 2,299명에서 2021년 말 약9만 2천명으로 약 7.5배 이상 급증하였다.	...2012년 가입자가 1만 2,299명에서 2022년 약9만 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내용 수정
269p 상6	마. 중도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동일한 주택으로 5년동안 가입 제한된다.	마. 중도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 동일한 주택으로 3년동안 가입 제한된다.	내용수정
270p 하1	매월 97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매월 97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내용수정
272p 상2	종신지급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매월 162만 4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종신행과 비교하면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65만 2천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종신지급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10년 동안 매월 158만 2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종신행과 비교하면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65만 6천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	내용수정
277p 하8	이러한 장점과 노후소득이 부족한 은퇴세대들이 많아 2015년 2만 1,920명에서 2021년말 약9만2천명이 가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과 노후소득이 부족한 은퇴세대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내용 수정
278p 상6~7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60세 남자는 평균 81.55세, 여성은 86.5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통계청의 2022년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남자의 평균여명이 23.5세, 여성은 28.4세이다. 즉, 현재기준 60세 남녀 평균수명이 83.5세, 88.4세이다.	내용 수정
278p 상10~12	... 이 남자가 82세까지 사는 것으로 가정하고 집값을 매월 연금형태로 분할해서 지급한다. 만일 남자가 82세 이전에 사망하면 미처 다 받지 못한 돈은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지만, 이 남자가 82세를 넘겨 92세까지 산다면....	... 이 남자가 84세까지 사는 것으로 가정하고 집값을 매월 연금형태로 분할해서 지급한다. 만일 남자가 84세 이전에 사망하면 미처 다 받지 못한 돈은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지만, 이 남자가 84세를 넘겨 94세까지 산다면....	내용 수정

279p 하11~8	...우리나라 평균인 81.5세보다 약8.5년은 더 살아가 자기가 낸 돈을 겨우 연금으로 다 채워 받는 셈이 된다. 남성은 적어도 90세, 여성은 95세까지는 살아야 보험사와의 수명 맞추기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미처 못받은 연금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 역시 남성은 81.5세, 여성은 86.5세가 손익분기점이다.	...우리나라 60세 남녀평균 수명인 86세보다 약5년 이상은 더 살아가 자기가 낸 돈을 겨우 연금으로 다 채워 받는 셈이 된다. 남성은 적어도 90세, 여성은 95세까지는 살아야 보험사와의 수명맞추기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다. 미처 못받은 연금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 역시 남성은 83.5세, 여성은 88.4세가 손익분기점이다.	내용 수정
288p 상10~13	농지연금은 농지소유자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2015년의 경우 1950.12.31. 이전 출생자)	농지연금은 농지소유자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2023년의 경우 1963년 출생일 이전 출생자)	내용 수정
289p 하4	즉,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다만, 감정평가액은 20% 감액하여 80%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다만, 감정평가액은 10% 감액하여 90%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 수정
290p	표3-24 연금수급기간별 가입연령	표 3-24 교체 [첨부 5] 참조	내용 수정
291p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연 3.0%를 적용한다.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연 2.0%를 적용한다.	내용 수정
294p	표3-27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비교 가입연령 농지소유자 만65세 이상	표3-27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비교 가입연령 농지소유자 만60세 이상	내용 수정
299p 하2~ 300 상2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주가 전체 가계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5%에 달한다. 30대와 40대 가구주의 부동산 비중이 60%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물론 전체자산 및 부동산자산의 절대 규모는 30대나 40대보다 많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자산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주가 전체 가계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수준에 달한다. 30대와 40대 가구주의 부동산 비중인 60%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물론 전체자산 및 부동산자산의 절대 규모는 30대나 40대보다 많지만 월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자산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내용 수정
303p 상3~9	부동산114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 마포구에서 공급된 전용60m 이하 소형아파트의	2022년~2023년 금리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세가 하락으로 반전되었지만, 주택의 시세가 폭등하면서 독립시기인	내용 수정

	<p>3.3m당 분양금액이 1,745만원, 85m 초과 아파트는 2,400만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2,381만원과 1,972만원으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중대형보다 더 높아지면서 평형당 시세가 소형가격은 36% 상승하였으나, 중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0.8% 하락하는 등 평형당 시세가 역전됐다. 은퇴를 앞두고 자녀가 장성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은퇴세대 특히,</p>	<p>청년 및 결혼전·후 세대들의 주거마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소형아파트의 가격상승액은 더 커서 결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속에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세대 특히,</p>	
303p	그림 3-15 아파트분양가 및 분양규모 변화	그림 삭제	그림 삭제
306p	그림 3-18 귀농어·귀촌 현황(2020년)	그림 3-18 귀농어·귀촌 현황(2021년) [첨부 6] 참조	제목 수정 및 그림 교체

[첨부 1] 225p

표3-3 가구별 자산 유형별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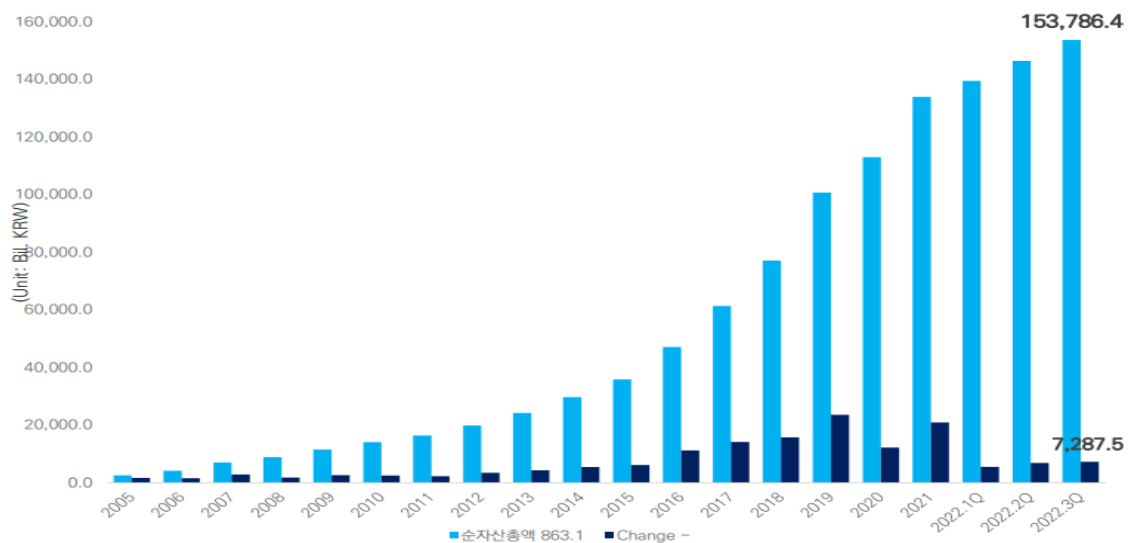
(단위: 만원, %)

		자 산	금 융 자 산			실 물 자 산				
				저 축액	전·월세 보증금		구성비	부 동산	거주주택	기 타
전 체		54,772	12,126	8,548	3,577	42,646	77.9	40,355	25,496	2,292
가 구 주 연 령 대 별	3 9 세 이 하	36,333	12,489	5,555	6,934	23,844	65.6	21,927	15,648	1,917
	· 2 9 세 이 하	13,498	7,728	2,313	5,415	5,770	42.7	5,089	3,614	681
	· 3 0 ~ 3 9 세	41,246	13,514	6,253	7,261	27,732	67.2	25,549	18,237	2,183
	4 0 ~ 4 9 세	59,241	14,315	9,444	4,871	44,927	75.8	42,167	29,348	2,759
	5 0 ~ 5 9 세	64,236	14,674	11,413	3,261	49,562	77.2	46,662	28,539	2,899
	6 0 세 이 상	54,372	9,219	7,574	1,645	45,153	83.0	43,329	25,728	1,824
가 구 주 출 생 지 별	상 용 근 로 자	61,848	15,911	10,408	5,503	45,937	74.3	44,040	30,013	1,897
	임사·일용근로자	24,142	5,744	3,941	1,803	18,397	76.2	17,640	12,859	758
	자 영 업 자	66,256	11,507	9,128	2,379	54,749	82.6	49,265	24,616	5,485
	기타(무직 등)	45,167	8,446	6,639	1,807	36,721	81.3	36,049	23,998	672

※ 출처 : 한국은행

[첨부 2] 252p

그림 3-8 간접투자시장(펀드) 추이



※ 출처 : 한국금융투자협회

[첨부 3] 25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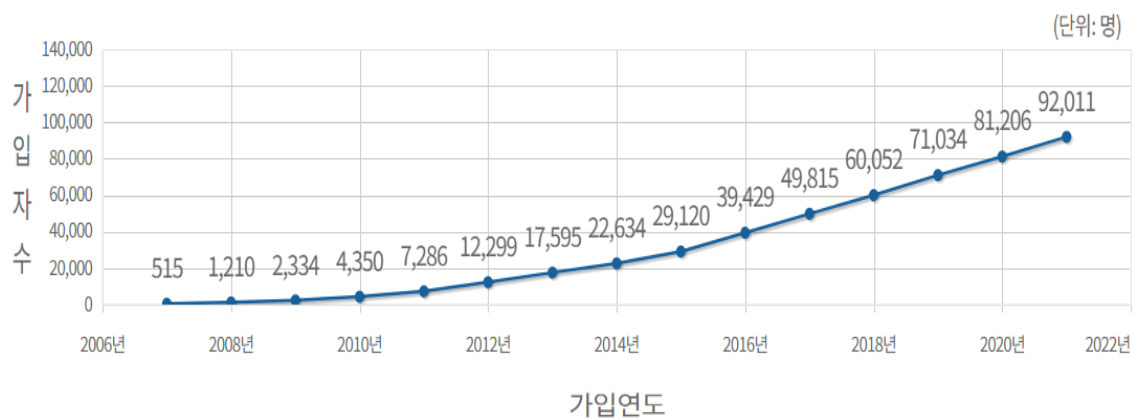
표 3-13 수익용부동산과 금융자산 수익률 비교

수익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금융자산 수익률 (%)				
부동산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월	기준금리	CD금리 (91일)	회사채 (3년,AA-)	국고채 (3년)
집 합 상가	7.04	6.44	5.30	6.42	23.2월말	3.50	3.6	4.4	3.8
소규모 상가	6.20	5.45	4.55	5.98					
중대형 상가	6.73	6.15	5.01	6.84					
오피스부동산	7.40	7.46	5.88	8.09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첨부 4] 263p

그림 3-10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추이 (단위: 명)



※출처 : 주택금융공사

[첨부 5] 290p

표 3-24

기 간	종신형	15년형	10년형	5년형
가입연령	만60세이상	만68세 이상	만73세 이상	만78세 이상

※출처 : 농지은행·농지연금

[첨부 6] 306p

그림 3-18 귀농어·귀촌 현황(2021년)



* 출처 : 귀농 귀촌 종합센터

2023 ARPS 교재 연례개정

2권. 은퇴설계를 위한 현금흐름(Cash Flow) 확보와 세금설계

2권.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설계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25	상13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이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	그 가액(유사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적용 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이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사례가액을 적용하되,	내용 수정
328	사례	2016.7.1.	2023.7.1.	내용 수정
329	상3 하단		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등	내용 추가
332	상1	다른 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및 자녀공제	
332	하1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매출액 3천억원까지의 기업 포함)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제외)의	
332	하6	(200억원 ~ 500억원 한도)	(300억원 ~ 600억원 한도)	내용 수정
332	하4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상속인은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내용 수정
336	<계산> ⑧	1억원	4억원	내용 수정
342	하2 상단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등	내용 추가
343	상1	(성실공익법은 10%)	(성실공익법은 10% 또는 20%)	내용 수정
343	상3~11	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연장하여야함	나.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장애인 본	내용 수정

			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자익신탁)과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재산신탁(타익신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함)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함)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44	상5~10	<p>다. 창업자금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한다. 그러나,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한도는 50억원이다. 단,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한 특례 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한다.</p> <p>라.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한다.</p>	<p>다. 창업자금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한다. 그러나,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한도는 100억원이다. 단,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50억원을 초과한 특례 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한다.</p> <p>라.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한다.</p>	내용 수정
345	하8	~를 가산한다.	~를 가산한다. 다만, 부모가 조부모(외 조부모 포함)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 추가
347	표4-9 좌측	<p>·배우자공제: 5~30억원</p> <p>·금융재산공제: Min[금융재산X20%,2억원]</p> <p>·가업상속공제: 최고 500억원</p> <p>·동거주택상속공제: 최고 5억원</p>	<p>·배우자상속공제: 5~30억원</p> <p>·금융재산공제: 최고 2억원</p> <p>·가업상속공제: 최고 600억원</p> <p>·동거주택상속공제: 최고 6억원</p>	표 수정
351	상2	~아파트(시가 10억원, 취득가액 8억원, 전세보증금 5억원)를	~아파트(시가 10억원, 취득가액 8억원, A아파트에 담보된 은행차입금 5억원)를	내용 수정

351	상4	~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포함하여	~ 은행차입금을 전액 승계(부담)시켜	내용 수정
351	사례 표	산출세액 : 0.2211억원	산출세액 : 0.21516억원	사례 표 수정
351	사례 표	-1,490만원	-1,544만원	사례 표 수정
351	사례 표	산출세액 합계: 1.0211억원	산출세액 합계: 1.01516억원	사례 표 수정
356	표 4-12 제목	보험금에 대한 민법과 상속재산 여부	보험금에 대한 민법과 「상증법」의 상속재산 여부	내용 수정
356	표 4-12 아래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계약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함	내용 추가
360	상4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 수정
360	표 4-14	~ 경우(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 인 출은 허용)	~ 경우(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특수교육비·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 및 간병인 비용의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은 허용)	내용 수정
362	상13	최대 500억원까지	최대 600억원까지	내용 수정
362	하1~ 하 9	[참고] 2016 세법 개정사항	삭제	내용 삭제
363	상2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	전액(300억원~600억원 한도)	내용 수정
363	상4	10년 이상 :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내용 수정
363	상10	~ 가업의 영위기간	~ 가업의 영위기간(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함)	내용 추가
363	하7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상속개시일 전에 상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내용 수정

364	상9	가업상속 후 7년간~	가업상속 후 5년간~	내용 수정
364	하2	라. 각 ~ 미달	삭제	내용 삭제
364	하1~2	마. 상속 ~ 미달	라. 상속 개시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이 둘 모두 직전 2개 기간 평균의 90% 미만	내용 수정
365	표 상속세 와 증여 세 비교	·금융재산공제: Min[금융재산X20%,2억원] ·가업상속공제: 최고 50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고 5억원	·금융재산공제: 최고 2억원 ·가업상속공제: 최고 60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고 6억원	내용 수정
365	하1	~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 재산의 매매가액,	내용 수정
366	상1	~ 포함한다.	~ 포함하며, 상기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및 감정가액의 유사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내용 추가
366	하4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는	내용 수정
366	하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내용 수정
367	상6	~ 최대 500억원까지	~ 최대 600억원까지	내용 수정